

오가노이드사이언스, 25일 ‘레드-그린 바이오 융합 심포지엄’

오가노이드 활용 신약 성과 공유… 바이오 혁신 앞장선다

바이오 분야 지·산·학 협력 확대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현황 발표
“전북도 중심 산업 생태계 확장”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전북특별자치도, 원광대학교와 함께 바이오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지·산·학 협력을 본격화 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는 25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원광대학교 프라운컨퍼런스홀에서 ‘레드-그린 바이오 융합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원광대학교 글로벌사업 1주년과 오가노이드사이언스 RGB연구소 개소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원광대학교가 함께 하는 지·산·학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혁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학술 교류를 통해 응용생명과학 분야의 발전과 글로벌 사업 모델의 수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기획할 수 있도록 도모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와 정현율 익산시장이 축사를 통해 지역과 대학, 기업이 함께하는 바이오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가 지역과 글로벌을 잇는 바이오 혁신의 비전을 강조하며 환영사를 전한

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들도 참석해 국내 바이오 정책 방향과 지역 발전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술세션에서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이경진 상무가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신약개발 및 재생치료제 개발 현황과 비전’의 주제로 그동안의 성과와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다.

도쿄의치과대학 류이치 오키모토 교수는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개발 현황’을 발표하고, UC 버클리 조명제 교수는 ‘유전자 교정을 활용한 친환경 농작물 개발’의 최신 성과를 소개한다. 이어 비동물실험 지원 비영리단체인 애니멀프리이니셔티브(AFI)의 유성지 대표는 ‘동물이 아닌 과학으로 증명하다’라는 주제로 동물실험 없는 미래의 글로벌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소장과 최민이 KAIST 교수, 한남식 캄브리지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레드바이오(의료·헬스케어)와

그린바이오(농업·식품) 분야의 융합가능성을 모색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전북도를 중심으로 의료와 농업을 아우르는 레드-그린 바이오 융합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원광대학교 글로벌 사업의 그 동안의 성과를 확인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글로벌 바이오 허브 구축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지역 특화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글로벌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원광대학교는 교육부 생명산업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전북도를 중심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확장과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 제시를 목표로 한다”며 “전북도가 주도하는 지·산·학 협력의 실질적 성과와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ellee@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창립 80주년 전시회 개최

아모레퍼시픽이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며 ‘아모레퍼시픽 80년 | 1945-2025’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전시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경기 오산 아모레 뷰티 파크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아카이브와 아모레퍼시픽 팩토리 두 공간에서 진행된다.

아카이브는 기업의 역사와 철학을, 팩토리는 산업적 기반과 생산 혁신을 소개한다. 두 전시는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 아모레퍼시픽의 도전 정신과 지속가능한 아름다움에 대한 비전을 함께 조명한다.

아카이브 전시는 ▲강한 상품과 브랜드 ▲디자인과 광고 ▲자연 원료 연구와 보존 ▲고객·사회와 소통 ▲해외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용산 본사 건축 등 6개 주제로 꾸며졌다. 특히 지난 80년 동안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소명을 바탕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이뤄낸 혁신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팩토리 전시는 아모레퍼시픽 생산 공장 변화상을 통해 K뷰티 기술력을 알린다. 지난 1958년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미세 제분기인 에어스폰을 비롯해 성형기, 충전기 등 과거 기계들부터 오늘날의 첨단 자동화 시설까지 관람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신제품

애경산업 바이컬러 ‘툰 탄력’ 2종

애경산업은 퍼스널 뷰티케어 브랜드 ‘바이컬러’에서 주름개선 기능성 바디제품군 ‘툰 탄력 바디케어’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바디 로션, 롤러 크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바디 붓기 및 혈행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을 함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바쿠치올, 판테놀,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보습 성분이 함께 처방됐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모닝케어 위슬루션 젤리스트릭

동아제약은 숙취해소제 브랜드 모닝케어에서 ‘모닝케어 위슬루션 젤리스트릭’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음주로 인한 위 건강과 민을 덜어줄 기능성 표시 식품이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 점막 보호 기능성으로 개별 인정을 받은 원료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을 함유한다. 이 성분은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이 확인돼 음주 등으로 약해지기 쉬운 위벽을 보호해 준다.

막대형 젤리 제형으로 설게돼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GC녹십자 ‘WHO GMP’ 서면 심사

GC녹십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실시하는 의약품 우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현장 실사를 서면으로 대체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실사는 품질인증(PQ) 제품에 대해 3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심사로, GC녹십자는 독감백신 ‘지씨플루’와 수두백신 ‘베리셀라’에 대한 GMP 적합성 검증을 받는다.

국내 제약사가 WHO GMP 실사를 서면 심사로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GC녹십자는 실질적으로 시간, 비용 등을 절감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 의약품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HLB제약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누적 판매량 40만개 돌파

HLB제약은 관절 전문 브랜드 관첵에서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 (사진)’가 누적 판매량 40만개를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관첵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연골 조직 성분인 ‘뮤코다당(콘드로이친 황산)·단백’을 1200mg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유기용매 등 화학 처리를 거치지 않고 자연유래 효소를 활용한 효소처리공법을 적용해 성분 흡수율과 안전성을 높였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CT-P44’ EMA 임상 3상 돌입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

3상 통해 다잘렉스 유사성 입증 항암제 포트폴리오 확대 구축

셀트리온이 미국, 한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다잘렉스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기 위한 임상에 돌입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지난 8월 29일(현지 시간)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CT-P44’ 유럽 임상 3상 시험계획(파트2)을 승인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지난 6월 파트2 심사를 신청하고 두 달여 만이다. 파트1 심사는 지난 4월 통과했다.

유럽은 임상시험계획 신청 및 승인 절차를 파트1(임상 디자인 및 연구방법에 관한 평가)과 파트2(임상 기관 및 실행에 관한 평가)로 나눈다. 두 단계

를 모두 거쳐야 임상시험을 추진이 가능하다.

CT-P44는 불응성 또는 재발성 다발성 골수종을 치료하기 위한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이다. 임상 3상을 통해 셀트리온은 CT-P44와 다잘렉스의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하고 유사성을 입증한다. 향후 임상기간 2년 동안 불응성 또는 재발성 다발성 골수 환자 486명에서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활성대조, 평행군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다잘렉스는 오는 2029년 미국에서, 2031년에는 유럽에서 각각 물질특허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글로벌 주요 국에서 후속 파이프라인 임상에 착수하는 등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셀트리온은 CT-P44임상 순항으로 신규 면역항암제를 추가함은 물론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CT-P44는 표적 항암제로, 다발성 골수종 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 표지를 표적해 암 세포의 성장을 막는 기전을 갖췄다.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는 또 다른 표적 항암제 후보물질은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CT-P51’이다. CT-P51은 면역세포 표면 단백질 PD-1을 억제하며 적응증은 비소세포폐암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나라셀라 “부산 APEC 만찬주 ‘몬테스 알파 엠’ 만나보세요”

만찬주 선정 20주년… 기획 세트 출시

국내 와인 유통업계 1호 상장사인 나라셀라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담 만찬주 선정 20주년을 기념해 ‘몬테스 알파 엠(Montes Alpha M)’ 특별 기획 세트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트는 2000 빈티지와 2020 빈티지 2종으로 구성돼, 20년의 시간을 잇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

‘몬테스 알파 엠’은 칠레 최초의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 ‘몬테스’를 대표하는 와인으로 보르도 블렌드(Bordeau x Blend) 방식으로 양조되어 깊이 있는 풍미와 우아한 밸런스로 국내 와인



‘몬테스 알파 엠’ 기획 세트

/나라셀라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다. 진한 루비빛을 띠며 라즈베리, 자두, 딸기 등 붉은 과실향과 은은한 후추의 스파이스함이 조화를 이루고, 부드러운 탄닌과 균형 잡힌 구조감

/신원선 기자 tree6834@